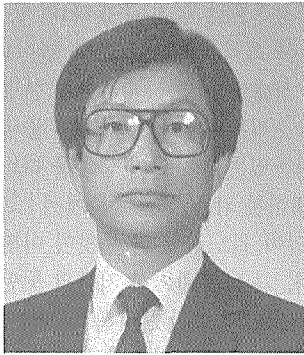


中國, 中國人, 그리고 中國문화와 우리의 좌표



林東錫

〈건국대 문과대학 중문과 교수〉

큰 흐름속의 自尊

나는 지난 8월 22일 마침 대만이 우리와 단교를 선언하던 그 시각에 대만 및 홍콩의 학자들과 한국에서 열린 국제 학술회의에서 함께 학문을 토론하고 있었다. 그 중엔 내가 대만서 유학할 때부터 잘 알고 지내던 노학자도 있었다. 회의는 무사히 끝나고 저녁때가 되어 만찬을 거쳐 술자리까지 이어지면서 누구하나 먼저 단교의 문제를 입밖에 내지 못하고 어딘가 어색한 분위기 속에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얼마후 대만학자 하나가 모두에게 건배를 청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단교는 정치가들의 일이고, 학문은 우리 학자들의 일입니다. 물론 학문이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오랜 학문 교류속에 싹터서 자라온 이 우의라는 나무는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더욱 튼튼히 자라 꽃피고 열매 맺을 것입니다』

이 말에 일순간 모두의 환호성이 울렸고 너나 할 것없이 지속적인 우정, 間斷없는 학문과 문화의 교류를 다짐하며 실로 감회깊은 역사의 한 토막을 건네고 있었다.

이처럼 중국인(대만은 물론 대륙인까지)은 이제껏 그 어떤 변화나 충격속에서도 먼저 「莊敬自強處

變不驚」의 의연함을 잃지 않는다. 역사는 한 순간이며, 자존은 영원하다는 것이다.

중국은 수천년 역사속에 끊임없이 자신의 주체 민족인 漢族이 아닌 변방이민족에게 영토를 내어주거나 나라 전체의 통치권을 송두리째 주고도 전혀 중요하지 않고 보통 이삼백년식 견뎌 내면서 끝내는 그들을 동화시켜 피를 섞어 녹여 버리고 말았다.

흉노, 돌궐, 거란, 말갈, 여진, 몽고등의 일부 혹은 모두는 한번 증원을 삼켰다는 명분외에 무엇이 남아있는가.

중국인에게 일이백년은 시간도 아니었으며 국교의 유무나 대립과 적대감의 유무는 세월이 흐르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고 묻고 있다.

이 '만만디(慢慢地)'속의 자존, 이것이 그들 피의 구성요소가 아닌가 한다.

海納百川의 기질

진시황이 천하통일을 꿈꾸며 모든 제후국의 학자들을 불러모았다. 대개가 법가사상을 가진 자들로 이들에 의해 진나라는 부국강병을 이루어 곧 통일의 대업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그러나 진시황은 이 외래 학자들의 진가가 드러나자 은근히 겁이났다. 지연도 혈연도 없는 이들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결국 진나라 출신이 아닌 학자, 정치가는 모두 출국하라는 소위 「逐客令」을 발표하게 된다. 이때 李斯라는 인물이 바로 지금까지도 중국인의 폭넓은 공감의 사상인 '해남백천'의 논리를 갈파, 왕으로 하여금 자신이 내린 법령을 철회토록 하고만다. 즉, 『태산이 그렇게 높을 수 있는 것은 작은 흙덩이 하나 싫다 하지 않는 때문이요, 하해가 그렇게 깊을 수 있는 것은 가는 도랑물일지라도 택해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泰山不離土壤故能成其大 河海不擇細流故能就其深)이라고 했던 것이다』

지금도 이와 같은 포용의 원리는 더 나아가 이민

족이 자기들 영토를 점령하여 큰 건물을 짓고 땅을 파는 것을 보면 당장 손해가 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두어라 싫것 크게 높게 짓도록 두어라. 세월이 흐르면 우리 것인데 뭘』라고 하는 배짱이다. 그 어떤 것도 중국땅에 들어왔다가 되가져 나간 것은 없다는 것이다.

포용의 논리뒤에 숨은 엄청난 야망

「빠앗고자 하거든 반드시 먼저 주어라」(將欲奪之必先與之) 노자의 이말은 지금도 중국 개개인까지도 실천하면서 사는 삶의 지표이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본격적인 국공내전이 벌어졌다. 국민당의 장개석 군대는 결국 패배하여 대만으로 옮겨 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때 이들은 큰 군함 세척에 북경의 고궁박물관 및 각지에서 모아 두었던 최고급 유물만을 가득 싣고 함께 대만 해협을 건너고 있었다. 이 정보를 입수한 모택동 참모가 급히 이 사실을 毛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毛는 태연하게 이렇게 지시했다고 전한다.

『그냥 두어라. 우리땅에서 우리땅으로 옮기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무사히 건너도록 잘 후회해 주어라』

이렇게 해서 보존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대북의 산속 엄청난 굴과 연결된 세계 4대 명물중의 하나인 故宮博物館 인류의 보물들이다.

이처럼 그들이 먼저 주는 것으로 취하는 것으로 삼는 철학은 긴역사로 보아 결국 성공한 셈이 아닌가.

저 만리장성이나 대운하, 그리고 西安의 그 웅장한 유적들, 그를 넘어 위구르, 티베트, 동북..., 그들이 잃듯이 도로 가지고 있는 그 저력은 바로 이런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한다. 즉 겉으로는 모든 것을 평온히 받아들이고 포용하면서 그 뒤에는 엄청난 야망을 안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국인. 이를 간파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경우에도 중국인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황하의 물은 그 어떤 강물보다 빨리 흐른다. 그러나 그 황하의 물위가 흐르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노신(魯迅)의 말이다.

차부뚜어(差不多) 선생과 카오뤄(考慮)

胡適은 일찌기 「差不多先生傳」이라는 의인소설을 써서 중국인의 흐리멍덩함을 통렬히 비판한 글을 남기고 있다.

「差不多」란 중국인이 가장 흔히 쓰는 말로 「큰차

없다」, 「대강 그렇다」 등의 뜻으로 모호성의 인정, 불간섭주의 분석을 싫어함, 긍정도 부정도 아닌 상황의 인정, 상대를 논리적 이성적으로 지배하거나 설득하지 않겠다는 無力함……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어에는 이에 못지 않은 말로 「카오뤄」(考慮)가 있다. 이또한 글자 그대로 「고려하다」, 「잘 살펴 긍정적으로 들어 주겠다」의 뜻이 아니다. 반대의사를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끈질긴 「만만디」로 상대에게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이익의 조건을 내놓으라는 뜻이다. 몇 년전 중국과 미수교 상태에서 이름있는 인사들이 중국을 다녀와서는 한결같이 큰 대어를 낚은 듯 중국측에서 「고려하겠다」는 대답을 얻어 왔노라고 곧 무엇이 어찌될 것처럼 떠들어 댔다. 그것은 완곡한 거부의 뜻인데 카오뤄라는 문자에만 얽매인 잘못된 해석에서 빚어진 웃지 못할 오해였다. 아니나 다를까 용두사미로 그런 사업은 꼬리도 없어졌고 무지개처럼 여겼던 그들은 중국인의 「만만디」라고 치부해 버려야 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일본 기업인들은 적어도 15차례 이상 현지에서 가서 확인하고 그야말로 자본주의식 「고려」를 거친 후라야 약정서에 서명을 한다고 하지 않는가. 지금 우리는 어떤가. 운도 따우지 않았는데도 「그랬다」라고 하는 조급함에 국제적 망신까지 당한 사례도 있다.

즉, 수교를 발표하기 직전, 『중국이 6·25때 북을 도와 참전했던 것을 유감으로 여기며, 역사적 불행으로 생각한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이튿날 약삭 빠른 일본 언론이 중국이 그런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했고, 다음날 중국도 정식으로 『한중 수교는 미래를 위해 열린 것이지 과거사의 幸不幸을 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나섰다. 우리의 거짓이었는지, 아니면 늘 희망사항을 기정사실화하는 조급함 속에 벌어진 헤프닝인지, 또 아니면 카오뤄, 차부뚜어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 이유에서인지 좌우간 부끄럽다. 어쨌거나 수천년 영향이 가장 컸으며, 교류가 끊임 없었기 때문에 비록 40여년 째 단절되었다 해도 우리는 심정적, 정서적으로 중국, 중국인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 거꾸로 가장 그들을 모르고 있었던 결과의 소치가 아닌가 한다.

愚公移山の 명철한 무모함

列子라는 책에 중국인 특유의 기질을 표현한 「우공이산」이라는 고사가 실려있다. 우공... 다분히 희화적으로 어리석은(愚) 노인(公)이란 한 사람이 집 앞에 버티고 있는 큰 산을 치우기 위해 삼태기로 퍼 나르는 것이다. 이웃이 그의 어리석음을 탓하자 『내가 다 못하면 내 아들, 그리고 그 아래 손자, 다시 그 후손... 언젠가는 이 산을 다 옮길수 있을거야. 산이 자라는 것이 아닌 바에야 끝없이 이어지는 후손이 덤비는 한 누가 이긴다는 것은 뻔한 논리가 아닌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우리 같으면 무모하다고 했을 것이다. 아니 당장 내일 모레 결과가 나타날 일이 아니라면 발상조차 아니했을 것이다. 바로 우리의 조급함. 그래서 생긴 부작용은 지금 우리 주변에 다리고 아파트고 제방이고 막 무너지는 소리로 다가오고 있는데도 말이다. 물론 길길은 멀고 해는 급하고, 계다가 어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야 하니 그 정도 부작용쯤이야 감내할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이는 국내에서 우리끼리의 상대가 없을 때의 얘기이다. 만만디, 차부뚜어, 카오뤄로 특장지워지는 중국을 상대로 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달라진다.

빠른 것은 좋다. 그러나 급한것은 문제가 있다.

『급히 굴면 오히려 닿지 못한다』(欲速則不達) 흔히 듣는 공자의 말이지만 이쯤서 다시 음미해 보아야 한다.

마라톤이 급히 뛰는다고 우승하는 것이 아니잖는가.

群盲摸象 -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의 중국이해는 금물

국교가 열리기 전부터 이미 중국의 물건이 판을 치더니 이제 우리의 매일 먹는 밥상위에 조차 마음놓고 올라 앉은 식품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리의 체질개선까지 해줄 판이다.

중국과의 농산물 교역만 보더라도 무역적자가 우선 89년 3.4억 달러에서 91년 8.9억달러이고, 수입 증가는 91년 상반기 3.3억달러에서 만 1년만인 92년 상반기가 5.1억 달러로 53% 증가했으며, 농산물 수입중 중국의존도는 90년 15%에서 92년 21%로 급증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속에서 우리는 중국대륙이 열리면 당장 천하가 내것이 되려니 하고 몽상에 젖어있다.기업인

은 그 12억이 모두 자신의 기업을 위해 저임금으로 힘써 노동해 줄것인양 꿈을 꾸고, 학자는 곧 중국의 저 貴州부터 黑龍江 끝까지 알고 싶은 지식의 욕구를 다 채워 주려니 여기고 있으며, 정치가는 그들대로 어떤 경우라도 외세의 침략을 막아줄 우군이 생긴 듯이 착각하고나 있지 않은지 모르겠다. 또 나아가 수입업자는 온갖 접해보지 못했던 값싼 물건을 노다지로 공급해 주려니 하고 들떠있으며, 수출업자는 속된 말로 머리당 1달러씩만 팔아도 12억이라는 허황된 꿈에 젖어 있을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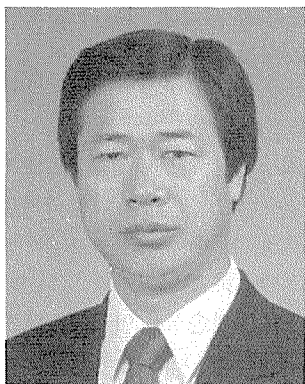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유학생 문제가 아닐까하고 지레 겁이난다. 좁은 진학과 무서운 교육열의 상승작용이 엉뚱하게 그 해결책을 중국유학(이럴 때는 留學이 아니라 渡學, 盜學이란 말이 맞을지 모르겠다)으로 몰려 너도 나도 대륙의 대학문을 돈이든, 힘이든 힘으로 두드리지나 않을지, 벌써 아침 뉴스와 도하 각신문에 폐해의 사례가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중국에 대해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의 어설픈 정보의 홍수속에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조급함으로 날뛰고 있다. 벌써 20년 전에 수교하고 물꼬를 튼 미국과 일본이 우리만 못해 지금 이렇게 조용한 것일까?

중국은 환상의 대상이나 장미빛 이웃이 아니다. 그렇다고 부정적이거나 경계의 대상만으로 여겨도 안된다. 오직 돈으로라도 구워 삶아 목적을 이루려는 앓팍한 술수나 조급함으로 덤볐다가는 자존도 국격도 다 잃고 만다. 중국과의 수교뒤에 가려진 대만과의 관계도 반성하고 넘어가자. 그들에게 전혀 그러지 않아도 될 체면손상을 안겨줌으로써 얻은 것이 무엇인가를 정객들은 다시 한번 머리조아려 연구해야 한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對臺灣 실무협상의 ① 양국간 대표부 설치 ② 양국 거주 자국민의 법적지위 및 재산권보장 ③ 통상관계 유지 ④ 각종 정부간 협정의 민간협정으로의 전환 등 4개 분야는 정말 성의와 진실을 다해 올려주어도 중국은 불평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제 동북아의 시대는 새로운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이쯤서 우리의 좌표를 정확히 정해 놓지 않으면 쇠구슬속에 섞인 나약한 유리구슬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걷는 자를 이길수 있는 길이 반드시 뛰는 것만 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

사회주의 개혁도 에너지가 변수



沈義燮

〈明知大 경제학과교수〉

지난 여름방학에 필자는 中國의 東北 3省(요령성, 흑룡강성, 길림성)과 몽골을 다녀왔다. 짧은 기간이지만 中國은 1년만에 다시 가보는 길이 고 몽골은 처음 찾는 여행이었다.

몇가지 여행중에 새겨진 인상을 中國의 연변과 훈춘, 몽골의 울란바타르를 중심으로 엮어 보고자 한다.

〈세갈래 길에서 고민하는 北京大生〉

中國개방의 여파는 여러 구석에서 새로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中國 최고의 지성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北京대학의 학생들한테도 개방의 고민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인구역제정책때문에 하나만 낳기 시대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너무나 애지중지하며 키웠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 어린애들까지도 모두 집안의 황제로 떠받들어 키우고 있는데 이는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中國에서도 매우 심한 지경에 이르렀다.

늙은 부모들이 자기 자식세대를 걱정하면서 남겨놓은 재산, 얻어 놓은 명성, 쌓아 올린 지위를 그대로 자식한테 넘겨 주면 좋으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도 집안이 잘 될려면 부모 아니, 애비가 간 길을 걸어주길 부모는 바라는 것이다.

그동안 中國에서 소위 일류대학생들한테는 두가지 길이 있었다. 하나는 관료가 되는 길이요, 다른 하나는 학자가 되는 길이었는데 단연 관료가 되는길이 가장 넓은 길이였다.

그런데 개방의 결과 하나의 길이 더 생겼다. 말하자면 흰길, 노란길, 검은길이 있는데 흰길은 진리를 의미하여 학자가 되는 길이요, 검은 길은 부패를 의미하여 관리가 되는 길이요, 노란길은 황금을 의미하여 사업자가 되는 길이다. 개방의 결과 노란길이 넓게 뻗어져 있어서 흰길은 더러워지고 좁아지며 검

은 길도 세상이 밝아져서 옛날 같지 않다. 지금은 너나 할것없이 노란길을 많이 가고 있는데 부모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노란길을 걱정하고 있다. 따라서 北京대생들은 부모가 바라는 검은 길과 탁트인 노란 길 그리고 하얀 오솔길을 놓고 장차 걸어야 할 길의 선택에서 고민아닌 고민을 하고 있다.

〈인민군의 삽자루에 개발이 고통치고〉

1년만에 다시 찾은 연길, 너무 많이 변하였다. 연길 제1의 시장인 서시장에 물건이 수북수북 쌓였고 작년에 들렸던 북한 상품 전문 판매점에도 작년 보다 많은 물건, 질이 꽤나 향상된(?) 상품이 늘어난 것 같아서 그래도 마음이 푸근해졌다.

또 서울에서 막노동해 돈을 모아서 새로산 가계, 넓은 가게에서 환한 웃음으로 맞아주고 선물을 듬뿍 주는 정겨운 아줌마를 보고 살맛나는 그들의 행복감을 엿볼 수 있었다.

호텔도 많아졌고, 서울말을 쓰는 사람도 많아지고, 가라오케도 많아졌다. 한국손님을 위한 식당이 망한 곳도 있었으며 젊은 여성들의 고리바지는 없어지고 긴 치마가 많아졌다. 그러나 길거리 먼지는 공사판을 많이 벌려서 더 많아진것 같았고 막잡은 통 개를 사서 자전거에 싣고가는 사람도 여전히 있었다.

개방·개혁이 시작되면서 연길에도 부자들이 많이 나타났다. 연길에서 100만원(우리돈 1.6억원상당) 이상의 백만장자가 28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조선족이 20명이나 된다고 자랑스러워 하였다. 그리고 그돈은 앞으로 더욱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니 민족자본의 축적을 위해서 한국기업과 합작사업을 더 많이 꾸리기를 간절히 원하였다.

연길시의 개발사업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外地(他省)인력의 수요가 늘어났다. 젊은 조선족 청년들은 놀으면 놀았지 소위 3D작업(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일)을 피하기 때문에 건설현장에도 일당 1달러를 벌기 위해 外地에서 몰려드는 人力을 활용하고 있었다. 그래도 사람이 모자라 인민군을 동원하여 공사를 하는 광경을 여러차례 보았다. 外地인들이 밥 한공기에 장아찌 하나로 점심식사를 하고 노숙하는 광경에서, 또 인민군들이 잡은 통막대 삽자루에서 개발의 고통소리를 들었지만 조선족이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 서글픈 심정에서 연변 자치주의 앞날에

불안한 느낌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연길시는 아직은 에너지 걱정없어〉

연길시와 연변의 단층집에서는 석탄을 연료로 사용한다. 두꺼운 벽, 이중창에 남향집을 짓기 때문에 영하 35° 되는 겨울도 그리 춥지 않게 지낸다. 또 아파트에는 가스가 공급되고 현대식 난방시설이 되어 있으며 아직 연료걱정은 않는다.

그러나 연길시는 개방이 가속되면서 새로운 공장이 들어서고 인구가 집중되면서 그에 따른 에너지 공급에 대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충분한 에너지 공급은 연변개발사업에서 중점항목으로 취급하고 있다.

연길분지에는 상당량의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훈춘에는 석탄의 매장량이 충분하다. 연길과 조양천 사이의 분지에는 질 좋은 원유가 매장되어 있어 中國 제1의 석유회사인 大庆강성 치치할시에 있는 大庆석유회사에서 직접 채굴할 예정이다. 大庆회사는 중국에서 필요한 석유의 40%를 공급하는 회사이다.

도문에서 볼 수 있는 연변석유정제공장은 곡수에 있다. 도문곡수정유회사는 연변화학공장, 연변알미늄공장과 더불어 연변에서 투자한 3대공장중의 하나이며 연변의 자랑거리이다. 연변에서 12억원을 투자하였는데 연간 정제능력은 20만톤에 이른다. 2년전부터 자체적으로 원유를 조달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경영에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맞은 적도 있었다. 그러나 원유공급이 안정되어 있고 앞으로 大庆에서 연변원유를 생산하여 공급을 담당한다면 운영상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훈춘의 야시장은 한밤까지 흥청거려〉

中國의 개방과 동북아 경제권이 거론되면서 두만강 개발이 늘 얘기되고 있다. 두만강 개발과 관련해서 中國이 말할때는 언제나 훈춘지역을 얘기하며 황금의 삼각지로서 치켜 세우고 있다.

훈춘시는 두만강 하류유역에 있는 5,000여km²의 지역으로서 18만명의 인구(도시에는 9만명)가 살고 있다. 개방초기에 길림성 개방지구로 지정(1988.12.13)하였고, 그후 국무원 의결로서 외국인에게 개방하기로 하였으며(1991.11.18), 금년에 국경개방도시로 되고 국가의 경제특구로 지정되었

다(1992. 3. 9).

그결과 훈춘시에 부동산 개발이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어서 도처에서 크레인과 인부들이 작업을 하고, 벽돌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며 높은 빌딩도 터를 잡고, 솟아오르고 있었다.

개방의 혼란으로 1개월밖에 안되었다는 야시장은 퇴근후 시민들이 모두 나온것 처럼 북적거리며 난장판과 같았다. 각종 먹거리부터 일용잡화, 야바위꾼까지 어우러져 있으며 새벽 1시가 넘어도 소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제한된 지역에서 개방의 혼란인 야시장이 서고 있었는데 새벽녘에는 청소부들이 쓰레기를 말끔히 치워 놓기 때문에 아침부터 다시 평상의 일과가 되풀이 되고 있었다.

개방과 개혁의 열기가 두만강을 따라 북한을 마주 보면서 中國의 끝인 훈춘까지 이르렀다. 훈춘에서 청진까지 210원(약 한화3만3천원)이면 하루관광을 할 수 있다는데 빨리 개방의 혼기가 두만강 건너편에 스며들어 에들러 찾는 백두산관광도 옛추억거리가 되기를 훈춘의 동포들이 우리보다 더 기다리는 마음이었다.

훈춘에는 12억톤의 석탄이 매장되어 있어 훈춘시는 석탄위에 있는 도시라고 한다. 앞으로 2개의 탄광을 더 개발하여 4개의 탄광을 운영할 계획이다.

훈춘에는 10만kW짜리의 화력발전소가 2개 가동되고 있는데 전기가 남아서 길림성과 흑룡강성으로 보내고 있다. 95년까지 30만kW짜리 2개를 더 건설하게 되면 발전량은 80만kW에 이르게 되어 충분한 전력공급으로 훈춘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누구시더라>

지난 8월에는 학술대회관계로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며칠을 지냈다. 아직 몽골을 방문하는 한국인은 연 500명내외라니까 그다지 알려지진 않았다.

흔히 듣던 얘기인데 해외에서 동양사람을 만났을 때 어디서 많이 봐온 분같은데 하면서 결례를 무릅쓰고 한국말을 건네보면 이상한 말로 대답하여 서로 의아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사람이 바로 몽골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들었다. 사실 맞는 말이었다. 몽골에 도착하니 너무나 한국적인, 아니 나 어릴적 자랐던 시골 읍내에 온 기분이었다. 타임머신

을 타고 과거로 여행을 하는 기분이었다.

그들은 한국사람들은 코리아나라 하지않고 솔롱고스라고 불러주었다. 무슨뜻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무지개라는 뜻이라고 하였다. 글썄 고려시대 공녀로 끌려간 숫자가 20만명 가까이 된대니까 그 자손들도 많이 번성하였으리라, 왕족에도 고려인의 피가 섞였고 각층에 피가 섞였으리라. 그러나 성씨는 남편을 따라야 되니 누가 고려사람의 피를 받았다고 말한들 거짓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저 무지개가 떴을 때 꼬리가 박힌 우물을 찾아 막 뛰어가던 어렸을적 추억만 떠오를 뿐이다. 내가가면 무지개도 달아나고 무지개가 박혀서 펄펄 끓었다는 칠색샘터에 가보면 샘물은 이미 식었듯이 달콤한 환상의 추억을 교감하면서 몽골인들을 대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무지개 꼬리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솔롱고스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다.

몽골인의 한국인에 대한 기대는 연변의 조선족보다도 더 큰것 같았다. 1년동안에 울란바타르에 있는 7개 대학에서 한국어과를 설치하였고 20여명의 한국의 유학생들이 강의를 맡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들의 한국열은 가히 짐작할만 하였다.

왜 한국의 사업가들이 투자한다 하고서는 안오느냐고 보챌때는 또다시 어린시절 생각이 되살아 날 뿐이었다. 서울간 아빠가 언제 오느냐고 머리를 긁어 보라고 했지. 귀 가까이 굶으면 소식이라도 듣는 다하여 하루에도 몇번씩 굶어보던 추억 말이다.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막연하지만 한국에 있는 몽골 유학생과 몽골에 있는 솔롱고스가 공부를 마치고 서로를 이해할때 한국의 투자가가 물려줄 것이라고 애타는 그들의 마음을 달래줄 뿐이었다.

<돈은 있는데 여섯아이 저녁거리가 걱정이야...>

국토는 남북한의 8배, 인구는 250만, 러시아와 中國에 갇혀 있는 나라, 러시아도 적이고 中國도 적이고, 그래도 나라를 지켜온것이 다행이랄까 아니면 옛 강대국이어서 감히 건드리지 못했을까?

20여년동안 부지런히 아이를 낳아 인구를 불린결과 1960년대 60만에서 이제야 200만을 넘게 되었는데 요즈음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 적게 나아 걱정이 태산이라나다.

그러나 더 큰 걱정은 오는 겨울에 굶어죽을 사람

이 생길까 봐서 마음이 편치 않다는 점이다.

몽골도 1988년부터 개혁·개방의 기치를 올렸다. 그러나 소련이 붕괴되면서 자기나라 살림살이도 어려운데 구차한 옛 동지를 구해줄 수 있겠는가?

소련으로부터 석유공급을 받았는데 벌써 경화결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中國인들 도와줄리가 없다. 울란바타르에는 기름이 없어서 에너지난이 극심하다. 기름을 배급받기 때문에 차가 있어도 굴리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시내에서는 유조차가 있고 시내버스가 줄을 서서 기름배급을 기다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

기름이 없어서 도시 교통이 불편한데 그보다도 더 처량한 것은 지방을 다닐 수 없다는 것이다. 시골과 도시 교통편도 그다지 발달하지 않았는데 그나마 기름이 없어서 더욱 불편하단다. 시골에 소도 있고, 말도 있고 먹을 것이 많은데 시골에서 갖다 줄 수도 없고 가지러 갈수도 없으니 식량과 먹을 것이 걱정 이란다.

국영 식품상점엘 가보았다. 텅텅비어 있었다. 철저히 비어 있었다. 그 넓은 매장에 옛날에는 먹을 것으로 꽉 차있었다는데 지금은 달걀 한판, 당근 한 봉지가 전부였다. 가격이 맞지 않아 생산도 않고 공급도 안되며 수송도 안되니 답답할 뿐이었다.

자유시장도 마찬가지로 이었다. 2,000여명 모이는 시장이었는데 식품과는는 한두군데 뿐이었다. 달리로 사고파는 외국인 시장에도 가보았는데 물건이 좀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여 몽땅 사갈때는 할인이 아니라 할증가격으로 계산을 해야한다.

필자를 안내하던 공무원 아줌마는 걱정이 태산이었다. 물가는 뛰지요, 교통이 나빠 먹을것은 가져올 수도 없지요, 농작물은 흉작이 예상되지요,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은 바라지도 않지만 줄리도 없단다. 그보다도 당장 여섯아이들의 저녁끼니 마련이 걱정이란다. 그래도 개혁과 개방을 되돌릴 수 없다고 힘주어 말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에너지 종속의 한이 서려 있었다. ♣

■ 시사용어 ■

A P E C

亞太경제협력체...韓國·濠洲중심 12개국 89년 창설

아시아太平洋 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의 줄임말이다.

APEC은 지난 89년 1월 韓·濠 정상회담에서 정부 차원의 지역경제협력체 창설 필요성에 합의한후 같은해 11월 호주 캔버라에서 亞·太지역 12개국이 참가, 제1차각료회의를 열고 창설됐다.

창설목적은 최근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및 보호주의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多者間무역협상등에서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한것.

회원국은 한국, 호주, 미국, 일본, 캐나다, 뉴질

랜드,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등 창립회원국 12개국외에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제3차 각료회의에서 중국, 홍콩, 대만등이 새로 가입, 15개국으로 늘어났다.

제4차 APEC 각료회의는 10일부터 이틀간 태국의 방콕에서 열려 ▲상설사무국설치 ▲기금형성 ▲회원국확대등을 논의 한다.

이번회의는 미국의 對대만 무기禁輸해제에 따른 美·中 관계등이 얽혀 EC(유럽공동체) 단일시장 추진등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